

EXHIBI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2021.12.10-2022.1.30

FORMES DU TRANSFERT 전이의 형태



Photo © Denis Boulze

10 YEARS OF ARTISTS' RESIDENCIES

ATELIER
HERMÈS

CREATE

창조한다는 것은 시간, 공간 및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탐구하는 행위입니다. 2010년부터 에르메스 재단은 현대 작가들을 에르메스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예술과 장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인의 탁월한 노하우가 접목된 독창적이면서도 특별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프랑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을 통해 레지던시의 중심에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제작과 실습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고자 하는 작가를 지원하는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작가와 장인의 만남,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술과 비즈니스 세계 간의 대담한 만남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의 필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접하기 어려운 소재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도전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에르메스 재단은 앞으로도 더 넓은 분야로 계속될 이 여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이번 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로랑 페주
에르메스 재단 디렉터

To create is to examine our place in the world by modifying our relationship with time, space and other human beings. Since 2010,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has invited visual artists to take up residencies in the Hermès workshops, bring art and artisan skills together for the making of new works. This dialogue with exceptional artisan know-how gives birth to original and unusual pieces to be shared with the public.

To be able to bring these works together in a three-phase group exhibition taking place in Asia and in France testifies to the creative energy at the heart of the Artists' Residencies. This programme is emblematic of the Fondation's actions in support of artists wishing to experiment with new forms—both of production and of practices. The Artists' Residencies represent an essential driver for creation, based on encounters between artists and craftspeople and, perhaps more daringly, between the art and business worlds.

As we celebrate a decade of artistic production in a manufacturing context, using materials that are rare in contemporary art,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rejoices in this retrospective exhibition that marks a milestone in a journey that will surely continue on to yet wider horizons.

LAURENT PEJOUX
Director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전이의 형태

에르메스 재단은 2010년부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에르메스 공방과의 밀접한 협업에 함께할 작가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귀한 소재, 숙련된 기술과 무형의 기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크, 가죽, 크리스탈 또는 은세공 공방에서 보내는 레지던시 초기의 나날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공방의 장인 정신에 감명을 받은 작가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창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가들은 이 발견의 시기를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 작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야 영감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구체적인 요청의 제약 없이 레지던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인들의 작업과 공방의 환경들을 관찰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교류 및 배움의 지점들이 생기고, 그 때 비로소 작가들은 최초의 예술적 직관력을 갖게 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또한 장인들에게는 습관적인 작업 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될 만한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 작가들은 장인들의 동의를 얻어 공방 한가운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공방 전체의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작업장과 공방의 중심에 예술이 갑자기 등장하는 사건은 단순한 일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도 많은 장인들은 이 만남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창조적인 예술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인들의 작업과 공방의 환경들을 관찰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교류 및 배움의 지점들이 생기고, 그 때 비로소 작가들은 최초의 예술적 직관력을 갖게 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또한 장인들에게는 습관적인 작업 방식에 새로운 도전이 될 만한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 작가들은 장인들의 동의를 얻어 공방 한가운데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공방 전체의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작업장과 공방의 중심에 예술이 갑자기 등장하는 사건은 단순한 일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도 많은 장인들은 이 만남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창조적인 예술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3년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열린 **컨덴세이션 (Condensation)** 전시는 물질의 변형을 중심으로 작가와 장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의 연금술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2018-2019년에 열린 **쉬지 않는 손 (Les Mains sans sommeil)**은 프랑스와 일본의 관람객들에게 기술과 정신을 전수하는 장인과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작가 사이에 일어나는 친밀한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 도쿄, 팡탱에서 열리는 이번 전이의 형태 (Formes du transfert) 전시는 에르메스 재단의 10년 간의 경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전시가 될 것입니다. 전시 제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라는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일반적인 문화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 오브제의 전이를 다루면서 동시에 이러한 공유를 통해 취하게 되는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컨덴세이션**에 이어 이번 전시의 제목도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차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전이 (transference)”는 어린 시절 기저의 욕구가 현재의 만남을 통해 현실화되는 기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상호 작용은 작가와 장인의 세계가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는 행위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와 형언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모든 행동, 모든 관점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모든 “실패”를 아우르는

FORMES DU TRANSF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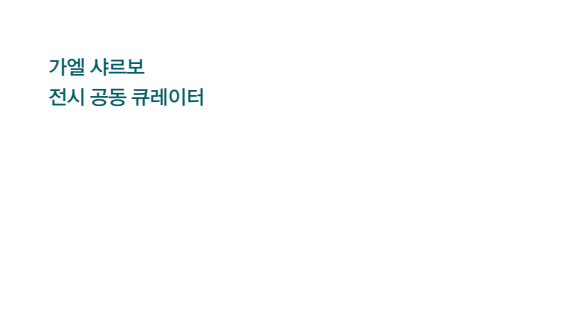
에르메스 재단은 2010년부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에르메스 공방과의 밀접한 협업에 함께할 작가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귀한 소재, 숙련된 기술과 무형의 기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크, 가죽, 크리스탈 또는 은세공 공방에서 보내는 레지던시 초기의 나날들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공방의 장인 정신에 감명을 받은 작가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창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가들은 이 발견의 시기를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 작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야 영감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구체적인 요청의 제약 없이 레지던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Since 2010,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has invited visual artists to take part in an adventure by immersing themselves in the world of Hermès workshops through the Artists’ Residencies programme. Each year, a world of exceptional materials, skilful techniques and invisible manipulations that are often hidden from the general public opens up to them. Whether in the silk, leather goods, crystal-making or silversmithing workshops, the first days of these residencies are generally filled with wonder: impressed by their surroundings and the workshops’ savoir-faire, how can the artists find their place in such an environment; how can they create here? The artists are encouraged not to start formulating a project until they have experienced this period of discovery, so that their inspiration may flow freely. They therefore enter the residency without any preconceived ideas or particular requests.

Over the course of these days of observation, as complicity and reference points are established, the first artistic intuitions come to them. For the artisans, it’s the chance to discover an approach that challenges their habitual working methods: on several occasions, with the agreement of the craftspeople, artists have conceived their artworks in the midst of the ateliers, transforming the space of an entire community. This sudden emergence of art at the heart of the factories and workshops is not just the stuff of anecdotes: several years down the line, many of the artisans tell detailed stories of what this encounter meant for them and how it chang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of creative artists. The exhibition **Condensation**, presented at the Palais de Tokyo in Paris in 2013, set out to highlight the common alchemy that unites artists and artisans around the transformation of matter. In 2018-2019, **Les Mains sans sommeil** offered the French and Japanese public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intimate dialogue that takes place between artisans who pass on their gestures and artists who invent forms. With this new exhibition, **Formes du transfert**, taking place in Seoul, Tokyo and Pantin,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ents its most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se ten years of experience. The title should be read in both senses, since this fruitful exchange is as much about the transfer of these artistic objects outside the usual cultural spaces as it is about the concrete “forms” that this sharing takes. Following on from **Condensation**, this exhibition also borrows a term from psychoanalysis: “transference” is a mechanism that actualises, in a present-day encounter,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더욱 강렬하면서도 뜻깊은 겸손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물보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서두름과 효율성에 대한 갈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지식 전수, 교류, 전달을 위한 인고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전이의 형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10년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리는 전시는 가족에 초점을 맞춰 이 매혹적인 소재를 통한 다양한 예술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도쿄의 르 포럼 (Le Forum)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세 명의 레지던시 작가와 세 명의 멘토가 자신의 작품을 해체하여 또 다른 차원의 예술적 동반의 형태를 보여주는, 즉 멘토와 멘티 (작가) 사이의 깊은 교류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팡탱의 마가쟁 제네로 (Magasins généraux)에서는 작품이 전달하는 공명과 공통된 요소를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시노그래피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다채로움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가엘 샤르보

전시 공동 큐레이터

a desire generally buried in childhood. All these complex interactions play a part when the worlds of the artist and the artisan mix. For, let’s face it, why would we spend so much time perfecting a form if it wasn’t that this action is indescribably linked to something deep inside us? Something that traverses all the gestures, all the points of view, but also all the “failures” that must be overcome and which make these residencies a time of great intensity and of rare humility. What becomes so precious is not so much the final object as the time spent in its conception. In a present dominated by constant rush and a craving for efficiency, this slow time of the passing on of knowledge, this time of exchange, this time of transfer, acquires a completely different value. **Formes du transfert** thus offers a retrospective look at the first ten years of the programme. In the Atelier Hermès space in Seoul, the exhibition focuses on the leatherworking métiers to show the variety of artistic approaches afforded by this fascinating material. At Le Forum in Tokyo, three artists-in-residence and three mentors are invited to deconstruct their works to present another dimension of artistic accompaniment: that of the complicity woven between the mentor and the artist they accompany. And, finally, at the Magasins généraux in Pantin, we rediscover all the richness of the programme in a hanging and scenography that arranges the projects according to their resonances and their common registers.

GAËL CHARBAU

Co-curator of the exhibition with Soyeon Ahn,
Artistic Director of Atelier Hermès





유신유 창

유신 유 창 (1980년생, 대만 태생)은 2003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했으며 부르주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했다. 변형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녀의 작업은 조각을 매개로 그녀가 형상화하고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재료 (흙, 양모, 린넨, 나무, 석탄 등)를 통해 형태의 미학을 탐구해왔다. 그녀는 오프 가죽 공방 (Manufacture de Haute-Marroquinerie)에서 가죽을 다루면서 장인의 손을 통해 이 소재가 거치게 되는 여정에 매료되었다. 가죽이 공방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평평한 형태”에서 “곧게 선” 가죽 제품으로 다시 공방을 나서게 되는 변화의 과정은 그녀가 이번 작품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었다. 유신 유 창은 원래 가죽 크기의 반 정도 되는 커다란 가죽 조각들을 바로 세우고, 도움을 주는 어떤 틀 없이도 조각들이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인들의 다양한 기법을 탐구하고 적용하였다.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무리처럼 구성되어 있다.

2010년부터 유신 유 창은 프랑스 파리의 팔레 드 도쿄, 파리시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유럽 및 아시아에 위치한 다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YUHSIN U CHANG

Yuhsin U Chang (b. 1980, Taiwan) has lived in France since 2003 and is a graduate of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in Bourges. Closely linked with the idea of metamorphosis, her works explore the forms and poetics of the living through raw materials (dust, wool, linen, wood, coal, etc) shaped and organised into a sculptural language. The artist took a similar approach to leather at the Manufacture de Haute-Marroquinerie, where she was fascinated by the journey of this material through the hands of the artisans. The transformation of leather arriving “flat out” and leaving “erect” inspired her to create this work. Yuhsin U Chang embraced the multiplicity of artisan techniques to make large, half-skin-sized pieces of leather stand upright and maintain their verticality without a frame. Her six mysterious leather creatures, which borrow as much from the plant as the animal world, are organised like an immobile herd.

Since 2010, she has taken part in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a number of galleries in Europe and Asia, including the Palais de Tokyo and Musée d'Art Moderne de Paris, France.



유신유 창, 2019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시도의 모형
잉크젯 프린트, 디아섹
Models of Tentatives
inkjet print, dibond
120 × 57 cm, 2021



시도 #2
소가죽, 염소가죽
Tentative #2
calf skin, goat skin
190 x 110 x 65 (h) cm, 2019



시도 #3
소가죽, 염소가죽
Tentative #3
calf skin, goat skin
110 x 110 x 120 (h) cm, 2019

베랑제르 에냉

베랑제르 에냉 (1983년생, 파리 태생)은 말라코프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에스티엔 고등그래픽예술산업학교 판화 과정 및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언어학을 수학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유머와 풍자적 재치가 내재해 있는데, 2020년 알랑 가죽 공방 (Maroquinerie de l'Allan)에서 진행된 레지던시에서 제작한 작품에도 이러한 특징이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그녀는 가죽 조각에 마르케트리 (상감세공: 바탕으로 짠 직물에 다른 색의 무늬를 끼워 넣어 짜 맞추는 방식) 기법을 적용하여 파티가 끝난 후의 장면을 묘사하는 설치물을 만들었다. 기쁨과 우울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끝나버린 축제 (La Fin de la fête)는 오랜 전통의 정물화에 기반을 두면서도 다양한 가죽 제작 기술을 실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에냉은 자화상과 현대인의 허무 (vanitas)에 대한 탐구를 지속한다.

2007년부터 에냉은 파리 크리스토프 가이아르 갤러리와 퐁피두 센터 등에서 열린 단체전 및 2011년 제56회 살롱 드 몽후즈 (Salon de Montrouge)에 참가했다.

BÉRENGÈRE HÉNIN

Bérengrère Hénin (b. 1983, Paris) lives and works in Malakoff. She is a graduate of the École Estienne print-making school and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in Paris, and pursued studies in linguistics in parallel. Her work is tinged with humour and sometimes satirical wit, which she did not leave behind when embarking on her 2020 residency at the Maroquinerie de l'Allan. Gleaning her materials from leather offcuts, she designed an installation entirely in leather depicting the aftermath of a party. Evoking joy and melancholy in equal measure, La Fin de la fête draws on the long tradition of still lifes in art—with the distinction of being a means to experiment with a host of leathermaking techniques. Through the various elements thus made, Hénin continues her exploration of the self-portrait and the contemporary vanitas.

Since 2007, she has taken part in several group shows and artistic events at Galerie Christophe Gaillard and the Centre Pompidou, Paris, and participated in the 56th Salon de Montrouge.



베랑제르 에냉, 2020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잉어 초상화 - 자포자기한 작가의 초상화
가죽, "빅 마우스 빌리 배스" 오브제
Autoportrait en Carpe - Portrait de l'Artiste Désespérée
leather, "Big Mouth Billy Bass" object
45 x 25 x 15 (h) cm, 2020



좌측:

잉어 초상화 I
 잉어 초상화 VI - 자포자기한 작가의 꿈틀거림.
 청병, 그리고 아르노 뤼부아의 웃음
 잉어 초상화 III - 오프닝을 위해 잘 차려입은 작가
 석판화
 Autoportrait en Carpe I
 Autoportrait en Carpe VI, desesperée,
 l'artiste fretille. Arnaud Dubois, eclabousse, rit
 Autoportrait en Carpe III, l'artiste
 s'est appretée pour le vernissage
 lithographs
 65 x 50 cm (each), 2021

우측:

뷔페 - 끝나버린 축제
 나무 협탁, 가죽 오브제
 Le Buffet - La Fin de la Fête
 wooden pedestal table and leather objects
 dimensions variable, 2020
 중앙:
 미러 볼 - 우울증
 미러 볼, 모터, 가죽
 Boule à facettes - Mélancolia
 mirror ball, motor, leather
 40 cm (diameter), 2020

루시 피칸데

루시 피칸데 (1982년생)는 파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신학과 철학을 수학한 그녀는 파리 제8대학에서 영화 미학에 관한 논문 과정을 마쳤다. 루시 피칸데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프랑스의 구상회화 (Figuration Libre)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 장-미셸 알베롤라 (Jean-Michel Alberola)를 사사하였고, 이후 팡탱 가죽 공방 레지던시에서 6개월동안 멘토링을 받았다. 루시 피칸데의 작업세계에서 글쓰기는 필수적인 행위인데 실제로 많은 소설과 시를 쓰기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초현실적이고 시적인 분위기의 자수, 수채화, 유화, 작은 오브제 등을 제작한다. 레지던시에서 제작한 작업은 천체를 연상시키는 원형의 평면 위에 고대 이집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아빨라' (벗터치 없이 납작하게 페인팅) 기법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감이 특징이다. 서로를 품은 한 여인과 악어 한 마리는 영원함과 영혼의 재생을 상징하는 전설 속의 '우로보로스 (uroboros, 꼬리를 삼키는 형상)' 형태를 취하는데, 긴장상태에서도 평형을 이루는 상태 또는 극과 극이 구분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에 에메리주 상 (Emerige Prize)을 수상한 그녀는 팔레 드 도쿄 및 아일랜드 현대 미술관 등의 기획 전시에 참여했다.

LUCIE PICANDET

Born in 1982, Lucie Picandet lives and works in Paris. After studying theology and philosophy, she undertook a thesis on film aesthetics at the Université Paris-VIII. She is an alumna of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where she met Jean-Michel Alberola, her mentor for this residency at the leatherworks in Pantin. The act of writing is essential in her work. In fact, she has written many novels and poems, and it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her work, creating embroidery, watercolor painting, oil painting or small objects that bring surreal and poetic atmosphere. Her work produced during Residency features varied colors reminiscent of an ancient Egyptian painting inspired 'Aplat' technique on a circular panel reminiscent of a celestial body. A woman and an alligator holding each other take the form of a legendary "Uroboros" symbolizing eternity and the regeneration of the soul, showing equilibrium even in tension or indistinguishable between poles.

Winner of the Emerige Prize in 2015, she participated in important exhibitions such as the Palais de Tokyo and the Irish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Dublin.



루시 피칸데, 2014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부화
종이에 수채 및 과슈
L'Éclosion - Oeil-de-Boeuf 3 "Sepia" -
Paysages intérieurs d'Hui - Celui (que je suis)
watercolor and gouache on paper
130 x 100 cm, 2019



나에게 육신이 무엇이든
가죽, 나무
Qui me soit chair
leather marquetry, wood
180 cm (diameter), 2015

이오 뷔르가르

이오 뷔르가르 (1987년생)는 보르도 인근 탈랑스에서 태어나 파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스트라스부르 아르데코 (École des Arts Décoratifs in Strasbourg)에서 수학했으며,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와 장 미셸 알베롤라 (Jean-Michel Alberola)의 스튜디오에서 지도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그림에서부터 조각, 프레스코에서 저부조까지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기반으로 현실과 환상 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셀롱쿠르 가죽 공방 (Maroquinerie de Seloncourt)의 첫 레지던시 작가로서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언어와 그림, 부피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가죽 장인의 도구와 그녀의 상상력으로 트렁크에 담긴 일련의 오브제 무슨 일이 생기든 (Que vogue la galère)을 완성했다.

현재 이오 뷔르가르는 마누엘 (Manuel)이라는 출판 및 전시 플랫폼을 공동 설립하여 큐레이터, 아티스틱 디렉터 및 저자로도 활동 중이다.

IO BURGARD

Born in Talence, near Bordeaux, Io Burgard (b. 1987) lives and works in Paris. She began her training at the École des Arts Décoratifs in Strasbourg, adding studies at the Beaux-Arts in Paris and at the studio of painter Jean-Michel Alberola. Working in several media, from drawing to sculpture, from frescos to bas-relief, Io Burgard moves seamlessly between real and fantasy worlds. As the first artist-in-residence at the Maroquinerie de Seloncourt, she pursued her research into language, drawing and volume with the help of the craftspeople. The result was the work Que vogue la galère: a series of objects contained in a trunk, inspired by the tools of the leatherworkers mixed with the world of her imagination.

She co-founded Manuel, a publishing and exhibitions platform where she acts as curator, artistic director and writer.



이오 뷔르가르, 2015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차창
석고
Fenêtre de Train
gypsum plaster
50.5 × 26 × 88 (h) cm, 2019



무슨 일이 생기든
가죽,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수지, 유리섬유
Que vogue la galère
leather, wood, stainless steel, resin, fiberglass
dimensions variable, 2016

세바스티앙 구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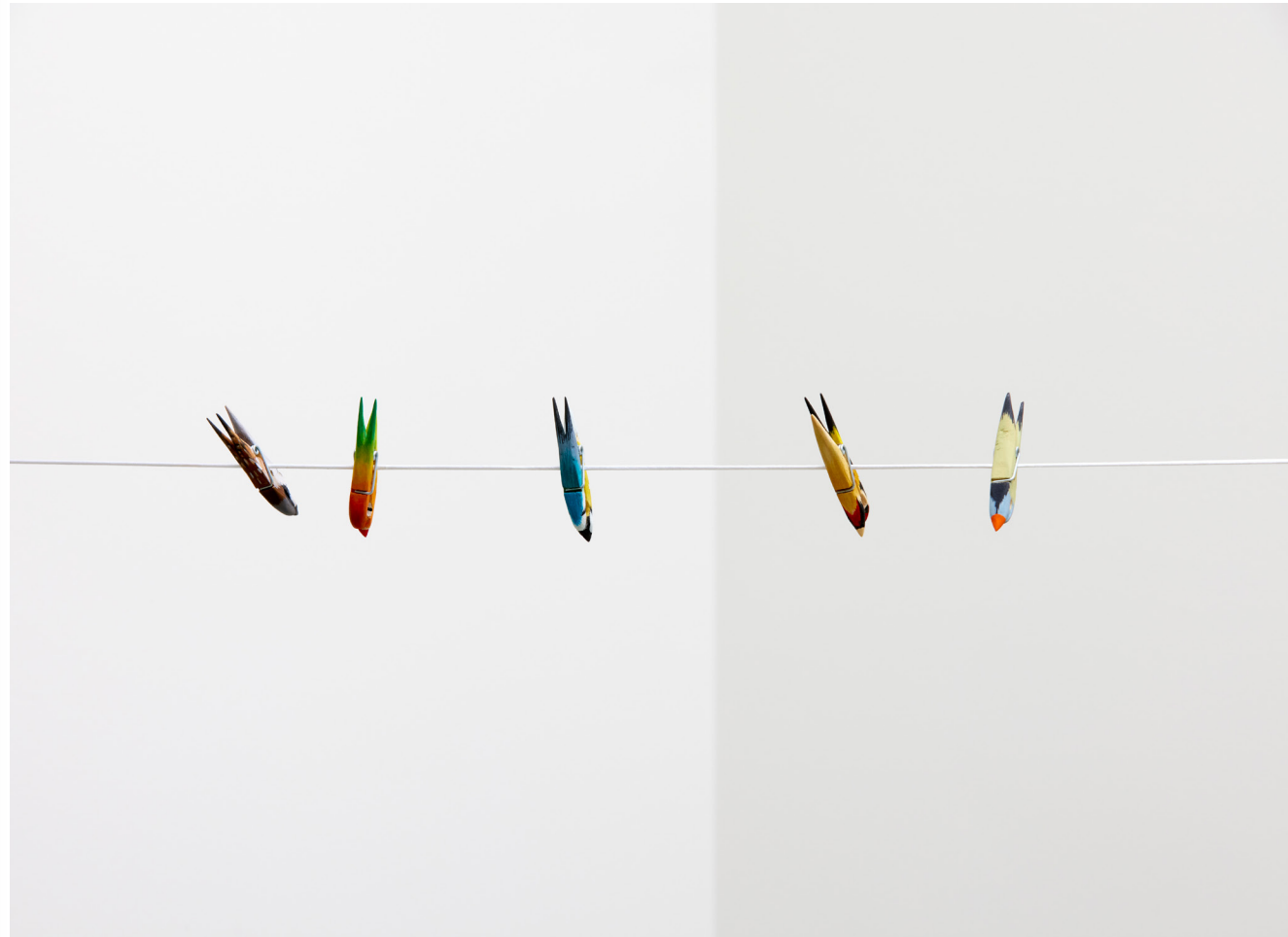
세바스티앙 구쥐 (1978년생)는 파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낭시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림과 조각을 매개로 시각적 환경을 만들면서 순응주나 명백한 의미의 틀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재구성된 이미지와 의미는 일상과 우화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가벼운,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는 생-쥐니앙 장갑 및 가죽 공방 (Ganterie-Marquinerie de Saint-Junien)의 레지던시에서 가죽 작업을 처음으로 접했다. 본래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의 본질적 의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공방에서 장갑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양가죽에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가죽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은색 양가죽, 철과 나무로 만든 그의 작품 역광 (Contre-jour)은 가죽에 대한 집약된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업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검은 실루엣의 야자수를 구현하면서 나무의 그래픽적 요소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작품 하단의 밑면을 형광 주황색으로 칠함으로써 작품이 마치 공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 멋진 정물화 속 동식물이 어우러진 것 같은 이 작품은 전체가 검은색 가죽으로 뒤덮인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황혼의 에덴동산”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세바스티앙 구쥐, 2018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ÉBASTIEN GOUJU

Sébastien Gouju (b. 1978) lives and works in Paris. A graduate of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et de Design in Nancy, he uses drawing and sculpture to manipulate our visual environment, delivering it from conformism and unequivocal meaning. Thus reconfigured, signs that have become images offer narratives—sometimes light, sometimes burdensome—at the crossroads between everyday life and fable. In residency at the Ganterie-Marquinerie de Saint-Junien, he discovered working with leather for the first time, conjugating its physical properties with his artistic vocabulary. Since he has been interested in the intrinsic meaning of each material that he used, it was natural for him to be interested in lamb, which is used essentially in glove making. His work *Contre-jour*, created with the aid of the leatherworkers' expert skills, is rooted in the collective imagination around this material. He tried to keep the graphic elements of the black silhouette palm tree against the sunset commonly found in postcards, and by painting the base of the work in fluorescent orange, the sculpture seems to float in space. Mixing the animal and vegetable in an astonishing still life, it offers a glimpse of a “twilight Garden of Eden” where various plants are constructed in their entirety in black leather.



전선 위
집게, 철사
Sur un fil
painted clothespins, wire
dimensions variabl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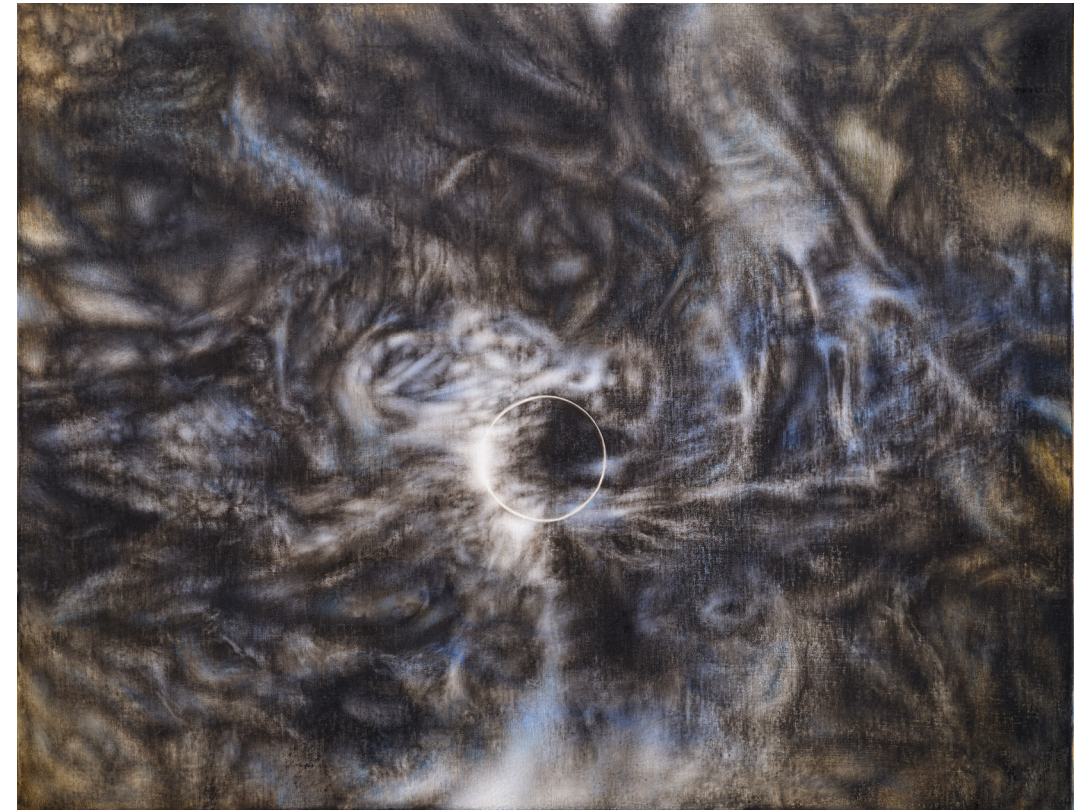
역광, 야자수
가죽, 나무, 철
Contre-jour, Palmier
leather, painted wood and steel
310 × 230 × 210 (h) cm, 2019

바실리 살피스티

바실리 살피스티 (1975년생, 그리스 태생)는 파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생테티엔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2000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주로 회화 작업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노르망디 가죽 공방 (Maroquinerie de Normandie)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한 그는 본격적인 작품을 구상하기 전, 가죽 재료의 심미성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요소들을 탐구하면서 베레니케 (Bérénice)의 일화를 떠올리게 되었다. 베레니케의 이야기는 동물의 형상 (사자자리 성단의 꼬리)이 인간의 일부(베레니케의 머리칼)로 변화하는 상징적 전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피스티의 작업에 있어 완벽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는 가죽 전체 표면에 최소한의 작업만을 진행하길 원했고, 이에 따라 표면과 질감의 차이, 자연 그대로의 색과 채색된 색의 차이, 브러시 자국과 가죽에 보이는 본연의 무늬를 활용하여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살피스티는 공방의 장인들이 오브제를 만들 때 가죽의 가장자리에 페인팅 하는 기법을 가죽의 표면까지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가 “조각적 회화 (sculptural painting)”라 묘사하는 이 작품은 벽에 걸린 채 그 자체의 무게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반형태 (anti form)”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VASSILIS SALPISTIS

Vassilis Salpistis (b. 1975, Greece) lives and works in Paris. After attending the École Supérieure d'Art et Design de Saint-Étienne, he graduated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in Paris in 2000. Working mainly in painting, he embraces a diversity of forms and techniques in this medium. In residence at the Maroquinerie de Normandie, he wanted to find something that could be deployed as a motif or as a texture, by using painting to explore those pictorial elements that are powerfully presented in the aesthetic of leather goods. The story of Bérénice struck him as the perfect starting point because, according to the legend, it is about the symbolic transition from the figure of the animal to human. He tried to use a minimal gesture over the entire surface of a hide. Playing on the differences of surfaces and textures, the variations between natural and painted colours, the marks of the brush and the veins of the skin, he reveals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Usually, when artisans create an object, leatherworking involves a kind of painting, applied to the edges of the leather. He wanted to extend these actions over the whole of the skin's surface. The work that he describes as a “sculptural painting” is suspended and shaped by its own weight, and evokes Robert Morris's “anti form”.



바실리 살피스티, 2018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일식
캔버스에 색연필, 목탄, 아크릴
Éclipse
colored pencils, charcoal and acrylic on canvas
90 x 70 cm, 2021



베레니케가 된 복스
복스 소가죽에 아크릴
Bérénice Box
box calfskin in acrylic
151 × 141 cm, 2018

아나스타지아 두카

아나스타지아 두카(1979년생)는 현재 아테네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카고 예술 학교와 아테네 미술 학교를 졸업 후 야도 콜로니(뉴욕), 잘츠부르크 국제아카데미와 스코히건 회화조각학교에서 레지던시에 참가했고, 토비 데반 루이스 펠로우십(Toby Devan Lewis Fellowship, 2013)과 DESTE 상(2011)을 수상했다.

두카는 잉글랜드 노샘프턴(Northampton)에 위치한 존 롭(John Lobb) 슈즈 공장에서 레지던시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한 특별한 슈즈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각 장인은 정해진 제작 공정에 따라 특정하면서도 반복되는 작업을 지속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만들어진 동일한 디자인의 슈즈들은 개성과 독특함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두카는 동일성 속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였고 장인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의 발 사이즈, 좋아하는 색, 선호하는 디자인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꼭 맞는 105컬레의 슈즈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그녀는 제5회 및 제6회 아테네 비엔날레, 보스턴 SMFA에서 열린 Reverb: New Art from Greece 등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ANASTASIA DOUKA

Anastasia Douka (b. 1979) lives and works in Athens. She studied at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the Athens School of Fine Arts, and has had residencies at the Yaddo Colony, New York, the Salzburg International Academy and the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Also, she has been awarded the Toby Devan Lewis Fellowship (2013) and the DESTE Prize (2011).

During her residency at the Northampton factory of boot maker John Lobb, located in England, she developed an ambitious project that consisted in developing a unique pair of shoes with and for each artisan, expressing their tastes and preferences. Each artisan concentrated on a particular and quite repetitive routine, and she thought that the idea of being personal and unique was lost among identical objects. Therefore, she tried to create something yours among a pile of identicals. She collected information of artisans and workers' shoe size, preferred color and design and produced 105 pair of shoes for them.

Her many recent exhibitions include: Athens Biennale 5 and 6 and Reverb: New Art from Greece, SMFA, Boston.



아나스타지아 두카, 2016년 레지던시 참가 © Tadzio /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밥 파이크의 8 사이즈 신발
잉크젯 프린트, 디아섹
Bob Pyke in size 8
inkjet print, dibond
95 x 66 cm, 2021



르 콜랑

가죽, MDF, 종이, 메탈 스냅, 리본

Le Collant, the thing you can't get rid of
a set of "non-shoes", selection of 21 out of 97
leather, MDF, paper, metal snaps, ribbon tags
dimensions variable, 2016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A commitment to this unifying statement drives everything we do at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ut another way, individual actions nurture growth and well-being for us all. The Foundation puts in plac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ransmission of skills and know-how, the creation of new work across the arts,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and the encouragement of social solidarity, through several programmes designed to accompany its beneficiaries as they build tomorrow's world. Together, these actions reflect our fundamental aims: to cultivate shared intelligence, harness progress for the greater good, and enshrine humanitarian values at the heart of today's society. Establish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directed by Laurent Pejoux, and presided by Olivier Fournier.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ès #에르메스재단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살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7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월요일-화요일 / 목요일-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수요일 및 신정 (1월 1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è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Th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The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La Verrière) and Tokyo (Le Forum).

MASI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82 2 3015 3248
F. +82 2 545 1224
Monday to Tuesday: 11am-7pm
Thursday to Saturday: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and New Year's Day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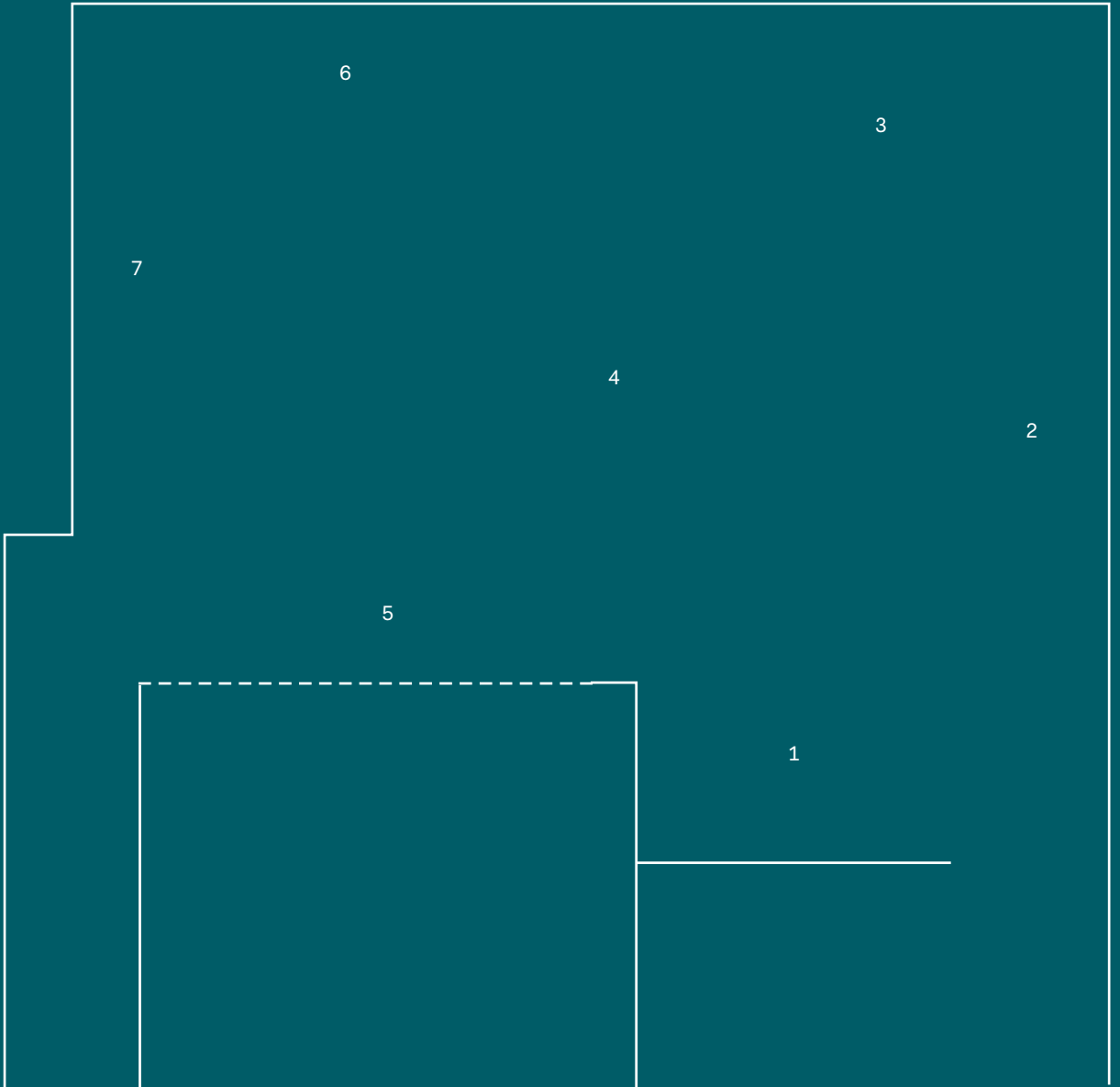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Maxime Gasnier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Cho Soo Min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Ahn Soyeon
Graphic Designer: Shin Shin
Exhibition Photographer: Kim Sangtae



- 1 유신 유 창 (Yuhsin U Chang)
- 2 베랑제르 에냉 (Bérengère Hénin)
- 3 루시 피캉데 (Lucie Picandet)
- 4 이오 뷔르가르 (Io Burgard)
- 5 세바스티앙 구쥬 (Sébastien Gouju)
- 6 바실리 살피스티 (Vassilis Salpistis)
- 7 아나스타지아 두카 (Anastasia Douka)